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여러 길들이 나 있다. 바다와 함께하는 해안도로, 제주의 마을들을 지나는 일주도로, 한라산 자락을 지나는 길 등 다양한 길들이 제주 곳곳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북쪽의 제주시와 남쪽의 서귀포시를 잇는 다양한 길들을 만나보자.



해맞이해안로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1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8-3(약 27.8km)

노을해안로 |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452-4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51-11(약 12.8km)

일주동로 | 제주시 화북2동 4827 ~ 서귀포시 법환동 843(약 92.2km)

일주서로 | 서귀포시 강정동 231-1 ~ 제주시 도두2동 162-2(약 79.1km)

중산간도로 | 제주시 봉개동 1540-3 ~ 서귀포시 서호동 1131(약 84.8km)

중산간서로 | 서귀포시 서호동 1131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7-2(약 67km)

1100로 | 서귀포시 중문동 1918-4 ~ 제주시 노형동 918(약 33.6km)

516로 | 서귀포시 동홍동 496-1 ~ 제주시 아라1동 423-1(약 31.6km)

산록북로 | 제주시 노형동 산17-1 ~ 제주시 아라1동 376-28(약 9.4km)

산록서로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3 ~ 제주시 해안동 산67(약 11km)



산록남로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05 ~ 서귀포시 상호동 산108-12(약 30.2km)

평화로 |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452-1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5(약 29.1km)

번영로 | 제주시 화북2동 4827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07-1(약 35.4km)

대한로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806-13 ~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914-5(약 12.2km)

녹차분재로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903-12 ~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7-5(약 8.9km)

한창로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155-12 ~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15(약 13km)

남조로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09-5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355-3(약 31.2km)

녹산로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527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16(약 10.3km)

금백조로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696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334(약 10.7km)

제성로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293-1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3780(약 4.1km)

해맞이해안로/노을해안로 | 해를 따라 가는 길

해맞이해안로는 해가 뜨는 방향으로 향하는 해안도로라는 의미이다. 이 길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제주의 동북쪽 해안을 따라 푸른 바다와 함께 할 수 있는 길로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김녕리에서 성산일출봉이 눈 앞에 보이는 오조리까지 이어진다. **해맞이해안로**에서는 한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성세기해변과 월정리해변을 비롯해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을 알리는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해녀마을인 하도리의 물질하는 해녀들의 모습, 종달리의 조개잡이 체험장 등을 만날 수 있다.

해맞이해안로와 반대편인 남서쪽 해안가의 **노을해안로**는 해가 지는 방향의 해안도로라는 의미이다. 대정읍 일과리에서 시작한 길은 한경면 고산리까지 이어지면서 노을이 아름다운 해안가를 지난다. 이 길은 2010년 국토부가 선정한 해안누리길에 선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세계지질공원의 명소인 수월봉 정상에서 수평선 너머로 지는 낙조의 모습이 일품이다.

일주동로/일주서로 | 해안가 마을을 지나는 일주도로

일주도로는 섬의 동쪽 방향을 지나는 **일주동로**와 서쪽 방향을 지나는 **일주서로**로 나뉜다. 지방도 1132호선인 일주도로는 제주의 해안마을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길이다. 과거 해안가 마을마다 나있던 길들을 연결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편하도록 만든 길이다.

일주동로는 제주시 화북동에서부터 조천읍과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의 마을들을 지나 서귀포시 법환동까지 이어진다. 일주동로 주변에서는 제주의 옛 모습을 전시한 국립제주 박물관과 제주의 아픈 상처인 4·3사건의 희생자를 기리는 북촌 너븐숭이4·3기념관, 신흥리의 바다목장, 쇠소깍이 있는 효돈천, 지질학적 가치를 주목받고 있는 하논, 2002년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던 월드컵 경기장 등을 만날 수 있다.

일주서로는 일주동로가 끝나는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안덕면, 대정읍, 한경면, 애월읍, 한림읍을 거쳐 제주시 도두동까지 이어진다. 일주서로 인근에는 세계지질공원의 명소인 산방산,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시설인 명월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괄지과물해변과 이호테우해변 등을 만날 수 있다.

중산간동로 / 중산간서로 | 중산간 마을의 통로 중산간도로

지방도 1136호선인 중산간도로는 동쪽을 연결하는 **중산간동로**와 서쪽을 연결하는 **중산간서로**로 나뉜다. 중산간도로는 해안가 마을보다 높은 지대에 자리잡은 중산간 지역의 마을들을 지나는 길이다. 중산간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여러 광역도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중산간동로는 제주시 봉개동에서 서귀포시 서호동까지 이어지면서 섬의 동쪽에 나 있는 번영로와 남조로, 516로 등과 연결되어 중산간 마을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고 있다. 중산간동로 주변에서는 마을 신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송당 본향당, 정의현의 행정 중심지였던 성읍리, 새로 조성되고 있는 서귀포 혁신도시 등을 만날 수 있다.



중산간서로

중산간서로는 **중산간동로**가 끝나는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애월읍 광령리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중산간서로** 역시 섬의 서쪽 지역을 관통하는 평화로와 산록남로, 1100로 등의 길과 연결되어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보다 편한 왕래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중산간서로 주변에는 고려시대 큰 규모를 자랑했던 절인 법화사, 무릉리에 있는 제주의 허파 곳자왓, 삼별초의 흔적이 남아있는 항몽유적지 등을 만날 수 있다.

1100로 / 516로 | 한라산 고개를 넘는 길

1100로는 한라산의 서쪽 능선을 넘어 제주시 노형동과 서귀포시 중문을 연결하는 길이다. 이 길은 1100고지의 높이를 지난다고 해서 **1100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방도 1139호선이기도 한 이 길은 우리나라의 도로 중에 고지대에 위치한 것으로는 손꼽히는 길이다. **1100로**는 한라산의 뒷세오름까지 오를 수 있는 어리목탐방로와 영실탐방로로 갈 수 있는 길이어서 한라산을 찾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1100로

길이다. 1100고지 인근에는 생태학적 가치가 높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1100고지 습지도 만날 수 있다. 높은 위치에 있는 만큼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통제가 되기도 하지만 나뭇가지들에 눈이 덮힌 겨울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516로

지방도 1131호선인 **516로**는 제주시내와 서귀포 시내를 바로 잇는 또 하나의 길이다. 한라산 동쪽 능선을 타고 넘는 이 길은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동홍동을 연결한다. **516로**가 처음 개설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당시에는 산남과 산북을 연결하는 군수물자의 보급 통로였기 때문에 도민들이 부역에 동원되는 어려움도 겪었다고 한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때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도로가 조성되면서 서귀포와 제주시를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왕래가 편해졌다. 이것을 기념하여 516도로라고 불리게 되었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하면서 **516로**라는 이름이 부여됐다. 이 길은 백록담까지 갈 수 있는 성판악탐방로로 이어지는 길이라서 한라산 정상에 오르려는 사람들은 이 길을 이용한다. 길 중간에는 숲으로 둘러싸인 숲터널이 있어 한 여름 울창한 나무 속에서 운치 있는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산록북로/산록서로/산록남로 | 산 아래 푸른 숲을 지나는 산록도로

산록도로는 중산간도로 보다 조금 더 한라산에 가까운 고지대를 지나는 길이다. 한라산 아래 숲이 우거진 곳에 조성된 길이라는 뜻으로 산록도로라고 부른다. 산록도로는 한라산 북쪽의 노형동에서 아라동까지 이어지는 **산록북로**, 한라산 북서쪽의 제주시 어음리에서 해안동까지 이어지는 **산록서로**, 한라산 남쪽의 제주시 금악로에서 서귀포시 상호동까지 이어지는 **산록남로**가 있다. 이 중 **산록북로**와 **산록서로**의 지방도 번호는 1117호선, **산록남로**는 1115호선이다. 산록도로 역시 한라산에 오를 수 있는 등반로와 연결되는데, **산록북로**에서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관음사탐방로 입구가 이어지고, **산록남로**에서는 한라산 남벽으로 이어지는 돈내코탐방로 입구와 연결된다. 산록도로는 한라산 자락의 목장과 초원 지대를 지나면서 해안가와와는 또 다른 제주의 매력을 보여준다.

평화로 / 번영로 | 평화와 번영을 꿈꾸는 길

지방도 1135호선인 **평화로**는 과거에 서부산업도로, 서부관광도로라고 불리다가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제주의 서쪽 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에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조선시대 제주목에서 대정현을 잇는 길이였기도 하다. 길의 중간에는 나라에서 마련한 서원(西院)이 있어 제주목과 대정현을 오가던 관리들이 묵어가거나 말을 바꿔 탔다. 지금은 길 주변에 제주경마장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테마파크들이 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길이다.



평화로

평화로와 반대쪽에는 제주시 화북동에서 서귀포시 표선리까지 이어지는 **번영로**가 있다. 지방도 97호선인 이 길 역시 동부산업도로, 동부관광도로로 불리다가 제주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번영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제주목에서 정의현까지 이어지던 길이었고, 동원(東院)이 마련되어 있어서 왕래하던 사람들이 쉬어가기도 했다. **번영로** 인근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과 제주 자연유산의 가치를 홍보하는 세계자연유산센터를 만날 수 있다.

대한로 / 녹차분재로 / 한창로 | 서부 지역을 잇는 길

대한로와 **녹차분재로**, **한창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길들이다. 지방도 1120호선인 **대한로**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제주시 한경면 지역을 연결하는 길이다. 이 길은 대정읍의 ‘대’와 한경면의 ‘한’을 붙여 **대한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동일리부터 중간간에 가까운 신평리, 청수리 등의 마을을 지난다. **대한로** 인근에서는 제주에 남아있는 일본군 갱도진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가마오름 갱도진지를 만날 수 있다.

녹차분재로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를 지나는 광역도로이다. 넓게 펼쳐진 녹차밭과 분재예술원이 있는 관광명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녹차분재로**

라는 이름이 붙었다. **녹차분재로** 인근에는 신화역사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과 우주탐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세워져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지방도 1116호선인 **한창로**는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를 연결하는 길이다. 한림읍의 ‘한’과 창천리의 ‘창’을 붙여 **한창로**라는 이름을 붙였다. 금악리와 동광리 상창리 등의 마을을 지나는 이 길은 과거에 서부 지역의 목장지대를 연결한다고 하여 서부축산도로라고 불리기도 했다. **한창로** 인근에는 아일랜드 사람인 맥그린치 신부가 땀흘려 조성한 이시돌 목장을 만날 수 있다.

남조로/녹산로/금백조로/제성로 | 동부 지역을 잇는 길



지방도 1118호선인 **남조로**는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남원의 머리글자 ‘남’과 조천의 머리글자 ‘조’를 따서 **남조로**라고 했다. **남조로** 인근에서는 현마공신 김만일의 고향인 제주마의 본향 의귀리,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오름, 돌과 관련된 제주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제주돌문화공원 등을 만날 수 있다.

녹산로

녹산로는 서귀포시 남원읍 가시리에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가시리에 있는 오름인 대록산과 소록산이 길과 가까이 있고 옛날 국영목장으로 사용했던 녹산장이 있었다는 의미로 **녹산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아직도 주변에는 목장이 많아 방목되어 있는 말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시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조랑말박물관이 있어 말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금백조로는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까지 이어진다. 금백조는 송당리 사람들이 모시는 본향당 신의 이름이다. 제주 전역에 흩어진 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금백조의 전설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금백조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길은 아부오름, 백약이오름, 좌보미오름 등 동부지역의 유명한 오름들 사이를 지나고 있어 푸른 초원과 오름이 만드는 아름다운 자연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지방도 1122호선인 **제성로**는 서귀포시 성산읍과 제주시를 연결한 도로라 하여 제주시의 ‘제’와 성산읍의 ‘성’을 붙여 **제성로**라고 했다. **제성로**는 현재 성산읍 수산리에서 구좌읍 종달리까지 이어져 있지만 앞으로 봉개동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길이 모두 뚫리면 구좌읍 마을 곳곳의 또 다른 면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